다시 뛰는 손흥민…2년 연속 득점왕 정조준

살라흐·케인에 누녜스·홀란까지…골든부트 경쟁 후끈

토트넘, 6일 밤 11시 사우샘프턴과 EPL 새 시즌 개막전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2년 연속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도전한다.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로 꼽히는 EPL의 2022-2023시즌이 오는 6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 리그 개막전인 크리스털 팰리스와 아스널의 경기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내 축구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홋스퍼은 6일 오후 11시 홈인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사우샘프턴을 상대로 새 시즌 개막전 킥오프에 나선다.

◇'손세이셔널' 손흥민, 두 시즌 연속 득점왕 '도전'

손흥민과 토트넘의 지난 시즌은 짜릿했다.

손흥민은 시즌 막판 득점포를 연사하며 23골을 작성,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르는 '신화'를 썼다.

한국인으로는 물론 아시아인으로서도 역대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손흥민이 득점왕 트로피인 '골든 부트'를 거머쥔 것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다.

손흥민의 득점력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도력이 시너지 효과를 낸 토트넘은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하며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행 출전권을 따냈다.

새 시즌 손흥민은 2년 연속 득점왕 등극에 도전한다.

득점포 예열은 순조롭게 마쳤다. 한국에서 가진 2경기를 포함해 프리시즌 4경기에서 2골을 넣고 3도움을 곁들였다.

3도움 모두 '단짝' 해리 케인의 득점으로 연결됐다.

EPL 통산 최다 합작골(41골) 기록을 보유해 EPL 역대 최고의 공격 콤비로 인정받는 손흥민과 케인이 이 기록을 어디까지 늘릴지도 새 시즌 관심거리다.

다만, 손흥민의 새 시즌 득점왕 등극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살라흐와 케인이 건재한 데다 지난 시즌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다윈 누녜스(리버풀), 독일 분데스리가를 정복한 '괴물'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등 새 골잡이들이 경쟁에 가세해서다.

영국 베팅업체 스카이베트가 책정한 배당률을 보면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 가능성은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홀란이 1위에 올랐고 살라흐, 케인, 누녜스가 차례로 2-4위에 자리했다. 맨시티에서 아스널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가브리에우 제주스가 손흥민과 함께 공동 5위였다.

◇여름 이적시장 '알짜 보강' 토트넘…'4강 이상을 노린다'

어느 때보다 알차게 전력을 보강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도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적시장마다 '짠물 행보'를 보여 팬들의 지탄을 받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베테랑 측면 수비수 이반 페리시치, 브라질 특급 공격수 히샤를리송, 프랑스 국가대표 센터백 클레망 랑글레 등 알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다.

이번에는 4강권 이상의 성적을 내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스카이베트, 베트365, 윌리엄힐 등 현지 베팅업체 대다수가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

1위는 맨시티, 2위는 리버풀이다. 맨시티는 리그 3연패에 리버풀은 3시즌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황소' 황희찬, 두 번째 EPL 시즌 '2년차 징크스'를 넘어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소' 황희찬(26)은 EPL에서의 2번째 시즌을 맞는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5골을 넣으며 한국인 EPL 데뷔 시즌 최다골 기록을 작성한 황희찬이 '2년 차 징크스' 없이 득점력을 뽐낼지 주목된다.

배번이 26번이었던 황희찬은 올 시즌부터 발 빠른 주전 공격수를 상징하는 11번을 달고 뛴다. 팀의 핵심 전력으로 인정받은 만큼, 황희찬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연합뉴스

안 풀리는 KIA…외국인 투수 살아나자 '필승조' 이탈

장현식·전상현 줄줄이 1군 말소…선발진 호투·타선 터져야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전반기 내내 고민거리였던 외국인 투수 문제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시즌 내내 KIA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던 장현식과 전상현 등 '필승조'가 동반 이탈하면서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게 됐다.

4년 만의 '가을 야구'에 도전하는 KIA는 올 시즌 전반기를 사실상 외국인 투수가 없는 상태서 보냈다.

외국인 투수 중 에이스였던 션 놀린은 지난 5월20일 NC 다이노스와 경기에서 6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승리를 챙긴 뒤 종아리 부상으로 2달이 넘도록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또 다른 외국인 투수였던 로니 윌리엄스는 10경기에 선발 등판해 5.89의 평균자책점으로 3승 3패를 기록하는 등 전혀 전력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KIA는 결국 지난 6월28일 로니를 시즌 도중 방출하는 강수를 두었다.

아직 시즌이 한창이지만 지금까지는 KIA의 모험은 성공인 것으로 보인다.

로니 대신 영입한 새 외국인 투수 토머스 파노니는 4경기에 선발 등판해 평균 자책점 3.86으로 1승 2패를 기록 중이다.

파노니는 정교한 제구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투구를 한다는 평을 받으며 성공적인 외국인 투수 교체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놀린도 2경기 만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는 등 KIA 선발진의 한 축으로 가세했다.

복귀전인 지난달 27일 NC 다이노스전에선 4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KIA 코치진을 만족시켰고, 2일 한화전에선 6이닝 6피안타 6탈삼진 4실점(3자책점)으로 잘 던졌다.

5월까지 평균자책점 3.55로 리그 평균 3.78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던 KIA 선발진은 외국인 투수 문제가 불거졌던 6월부터 급격하게 무너졌었다.

6월 KIA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5.03으로 급락했는데, 이는 리그 10개 구단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파노니와 놀린이 합류한 7월에는 리그 평균인

새 외국인 투수 파노니의 투구 모습.

4.44를 상회하는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두 외국인 투수의 합류로 기력을 되찾은 KIA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전반기 내내 무너진 선발진의 뒷수습을 하며 KIA의 뒷문을 책임졌던 장현식과 전상현이 팔꿈치 통증으로 한꺼번에 전력에 이탈했다.

지난달 28일 NC전에서 구원 등판했다가 팔꿈치 이상을 확인한 장현식은 곧바로 1군에서 말소돼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올 시즌 41경기에 출전해 43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3.89를 기록하며 2승 2패 1세이브 15홀드를 기록한 장현식이 이탈하면서 KIA 마운드의 무게감도 확연하게 줄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일 SSG 랜더스와 경기에서는 9회초 등판한 전상현이 팔꿈치 이상을 호소한 뒤 강판했다.

지난 1일 정밀검진 결과 팔꿈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복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경기 41이닝을 던져 평균자책점 2.41로 5승 4패 2세이브 16홀드를 올린 전상현까지 빠지면서 KIA는 남은 시즌 내내 뒷문 걱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KIA로서는 선발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지고, 부상에서 복귀한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합류한 타선까지 터져서 불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후반기의 지상 과제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윤서·양희찬 '금빛 발차기'

세계청소년선수권 동반 금메달

한국 태권도가 4년 만에 열린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금빛 발차기'를 이어갔다.

한국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은 3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김윤서(대전체고)와 양희찬(충북체고)의 활약으로 금메달 두 개를 수확했다.

여자 46㎏급 김윤서는 준결승과 결승전 모두 1라운드를 내준 뒤 2-3라운드 후반 드라마 같은 대역전승을 거두는 등 강한 체력과 승리욕으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카자흐스탄 선데트베이 아이다나와 결승에서는 1라운드에서 12-13으로 아쉽게 패한 뒤 2라운드(6-5)와 3라운드(11-10)에서 접전을 펼친 끝에 연달아 한 점 차로 전세를 뒤집었다.

남자 51㎏급 양희찬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단 한 라운드도 상대에 내주지 않고 완벽하게 금메달을 챙겼다.

결승에서는 우월한 신체 조건에 머리 공격까지 날카로운 카자흐스탄 툴레 타밀란을 상대로 1라운드에서 17-9로 이겨 기선을 제압한 뒤 2라운드에서 16-3의 점수 차 승으로 경기를 일찌감치 끝내고 정상에 올랐다.

7일까지 엿새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남녀 10개 체급씩에 모두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태권도 대표팀이 3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22 세계태권도연맹(WT)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김윤서(대전체고)와 양희찬(충북체고)의 활약으로 금메달 두 개를 수확했다. 사진은 여자 46㎏급 결승 경기 모습. /연합뉴스

'여제' 김연경 보러 가자

순천·도드람컵 배구대회 13일 팡파르

한여름 코트를 뜨겁게 달굴 프로배구대회가 3년 만에 관중들 앞에서 막을 올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부터 28일까지 총 16일 동안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를 개최한다.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프로배구대회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순천에서 다시 열린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 운영됐지만, 올해는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치러진다.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의 복귀전이다.

김연경이 속한 여자부 A조 흥국생명은 대회 첫날인 13일 오후 1시20분 IBK기업은행과 개막전을 치른다.

남자부에서는 삼성화재를 떠나 우리카드로 이적한 황승빈, 반대로 우리카드에서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게 된 하현용,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옮긴 이고은 등도 새 팀에서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권영민(한국전력), 고희진(KGC인삼공사), 권순찬(흥국생명), 김상우(삼성화재)는 감독 부임 후 첫 대회를 치른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여자부는 A조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 등 3개 팀이 경쟁하고, B조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 인삼공사가 겨룬다.

여자부 일정이 끝난 뒤 21일 남자부가 시작하며, V리그 소속 7개 팀과 국군체육부대(상무) 등 8개 팀이 A조와 B조로 나눠 경쟁한다.

남녀 모두 조별 1·2위가 준결승에 진출하며, 우승 상금은 5천만원, 준우승 상금은 3천만원으로 남녀 동일하다.

온라인 티켓 예매는 여자부가 10일, 남자부가 18일 오후 2시부터 KOVO 통합티켓 예매처를 통해 할 수 있다. 순천 팔마체육관 매표소에서도 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표를 판매한다. /연합뉴스

황의조, 황희찬과 한솥밥?

"울버햄프턴, 보르도에 영입 제안"

황희찬(26)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 원더러스가 황의조(30·보르도) 영입을 추진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레퀴프는 4일(한국시간) "울버햄프턴이 한국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를 영입하기 위해 보르도 구단에 이적료 300만유로(약 40억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보르도가 원하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황의조는 프리미어리거가 되기를 희망하며, 양 팀의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까지 성사될 경우 황의조는 국가 대표팀 동료인 황희찬과 울버햄프턴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다.

황의조의 현 소속팀인 보르도는 2021-2022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에서 20개 팀 중 최하위에 그쳐 리그2(2부)로 강등됐다.

여기에 팀의 재정난으로 인한 행정적 처분으로 3부 리그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난달 말 프랑스 올림픽스포츠위원회(CNOSF)와 프랑스축구협회(FFF)의 결정으로 2부에 잔류하게 됐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 선수단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

레퀴프는 "보르도는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다른 선수를) 이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보르도 구단의 급여는 프랑스 축구 재정 감시 기관인 DNCG에 제출된 예산보다 500만유로(약 66억5천만원) 많다"며 "황의조의 연봉은 약 200만유로(약 26억6천만원)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황의조의 계약은 2023년 6월까지로, 보르도는 올여름 이적료를 받고 그를 이적시키려 한다.

울버햄프턴 외에도 프랑스 리그1 낭트 등이 그의 영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차기 행선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황의조는 보르도에서 새 시즌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개막한 2022-2023시즌 리그2 발랑시엔과 개막전에 후반 교체 투입돼 18분가량을 소화했다.

2019년 보르도로 이적한 황의조는 2020-2021시즌 프랑스 리그1에서 12골을 넣었고, 지난 시즌에도 11골을 터뜨리는 등 유럽 무대에서 득점력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